



사람과 동물은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



'강아지의 기도' 서평

30여년 전 필자의 대학시절, 제주도에는 이렇다 할 반려동물 문화가 전무하다시피 했던 때였다 (1992년 초에 제주도에 최초의 반려동물 전문 동물병원이 개원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반려동물 축제가 처음 열렸다). 그러나 그 때 제주대학교 수의학과 학생들이 예비 임상수의사를 위한 학습지를 펴낸 적이 있었다. 그 학습지 첫 장에는 '강아지의 기도'라는 짧은 편지형식의 글이 있었다. 이 글로 인해 필자는 동물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그 글을 소개해 보려고 한다. 이 글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어떻게 같이 동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행복할 수 있는지 느껴 보기를 소망한다.

'강아지의 기도' - 베스 N. 해리스

사랑하는 주인님, 저를 다정하게 대해 주세요.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저보다 더 당신의 친절에 감사하지는 못 할 겁니다.

당신이 저를 때리려 하실 때, 제가 당신의 손을 핏다고 회초리를 들지는 말아 주세요. 제가 숨이 산산이 부서지고 만니까요. 인내와 이해심으로 잘 가르치신다면, 저는 더욱 빨리 당신의 뜻을 헤아릴 수 있을 겁니다.

제게 자주 말을 걸어 주세요. 당신의 목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감미로운 음악입니다. 당신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제 꼬리는 반가움으로 요동칩니다.

춥거나 비가 올 때면 집안에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세요. 전 이미 야생동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난롯가 당신의 발치곁에 앉게 해주세요. 그건 특권이 아니라 제겐 더 없는 영광이니까요. 비록 당신이 변변한 집 한 채 갖고 있지 못해도 저는 얼음과 눈을 뚫고서라도 당신을 따르겠어요. 전 따뜻한 실내의 보드라운 베개를 원치 않아요. 당신만이 저의 신이고, 저는 당신의 열렬한 숭배자이기 때문이죠.

제 밥그릇에 신선한 물을 채워 주세요. 그릇에 물이 없어도 원망은 없지만 저는 갈증을 당신께 표현할 수 없거든요.

제게 깨끗한 먹이를 주세요. 그래야만 제가 튼튼히 뛰놀며 당신의 지시를 따를 수 있잖아요? 또 제 몸이 건강해야 당신의 옆을 따라 걸으며 당신이 위험에 처했을 때 목숨을 다해 지켜드릴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주인님, 하느님이 제게서 건강한 시력을 거둬 가시더라도 잘 멀리 하지 말아주세요. 당신의 부드러운 손길로 저를 어루만져 주시며 영원한 휴식을 위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 끝으로, 저는 제 마지막 호흡까지도 느끼면서 당신 곁을 떠날 겁니다. 제 운명은 당신의 두 팔 속에서 가장 안전했었다는 기억과 함께...

10월 4일은 '세계 동물의 날'이다. '세계 동물의 날'은 동물의 권리와 복지 증진, 동물보호 장려 및 인간과 동물의 유대감 강화 등을 위해 1931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열린 생태학자대회에서 제정됐으며 매년 10월 4일을 기념일로 하고 있다. 이날은 전 세계적으로 동물보호와 애호, 동물복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된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주요 원인으로 인류의 자연생태 파괴로 인한 동물군집의 파괴와 야생동물들의 서식처 감소 등이 지목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원인들로 전 세계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 동물의 날' 제정 취지가 더욱 절실히 다가온다.



강성진
가람동물병원장

영화觀

사랑의 역사

요아킴 트리에 감독의 영화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는 다소 총동적인, 감정에 솔직한 여자 울리에의 사랑 이야기다. 모든 사랑이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이 영화는 나를 찾기 위한 울리에의 여정에서 그녀가 머무르는 사랑의 장소들과 시간들 그리고 그 공간을 함께한 사랑의 상대들과 그 모든 변곡점에서 출렁이던 울리에의 감정들까지 모두 소환해내는 집요한 작품이다.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그리고 12개의 챕터로 구성된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는 그 구성처럼 누군가가 써 내려간 것을 읽는 기분을 느끼게 만드는 영화이기도 하다. '사랑의 역사: 울리에 편'은 흔하고 진부한 연애 소설 같기도 하고 드물게 솔직하고 성실한 일기장처럼도 느껴지기도 하는데 사실 그 두 가지 감상은 모두 개인적인 것이라 이 영화에 대한 호불호 또한 아마도 읽는 이의 서사가 그 리트머스가 되지 않을까 싶다. 누군가는 크게 공감하며 탄식할 이야기고 누군가는 혀를 차며 안타까워할 이야기. 나는 탄식하며 입술을 깨문 쪽이었다. 나와 울리에의 너무나 다르지만 우리가 어떤 순간 똑같이 울었고 틀렸다는 걸 발견하자마자.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울리에에 낯선 사랑에 끌리는 순간 또한 겁내지 않는 사람이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울리에에 마치 탐험가처럼 보인다. 안전한 길이나 보장된 미래는 그녀에게 그다지 흥미롭지 않은 듯하다. 길을 따라가기도 하는 길을 내는 쪽의 사람이고 탐색하기보다는 탐닉하는 유형에 가깝게 느껴지기도 한다. 사랑에 풍덩 빠지지만 그 사랑에



영화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

서 힘들게 빠져나오고 빠져나온 뒤 다시 그 사랑의 응징으로 기여고 발을 들이는 울리에를 보며 고개를 끄덕거리다가도 절레 절레 손사래를 쳤다. 영화의 원제는 '세상 최악의 인간'이다. 누구도 울리에를 보며 '너는 세상 최악의 인간이야'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겠지만 아마도 울리에에 여러 번 스스로 되뇌었을 말일 것이다. 나는 정말 최악이야. 사랑이 뭐길래 울리에 연애 소설 같기도 하고 드물게 솔직하고 성실한 일기장처럼도 느껴지기도 하는데 사실 그 두 가지 감상은 모두 개인적인 것이라 이 영화에 대한 호불호 또한 아마도 읽는 이의 서사가 그 리트머스가 되지 않을까 싶다. 누군가는 크게 공감하며 탄식할 이야기고 누군가는 혀를 차며 안타까워할 이야기. 나는 탄식하며 입술을 깨문 쪽이었다. 나와 울리에의 너무나 다르지만 우리가 어떤 순간 똑같이 울었고 틀렸다는 걸 발견하자마자.

사랑의 역사는 쉽게 쓸 수 없지만 언제라도 쓸 수 있는 고유한 각자의 이야기다. 어렵게 쓴 첫 문장이 혼돈의 물음표와 격한 느낌표를 거쳐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우리는 여러 차례 반문한다. 내 사랑이 옳았는지, 이 사랑이 끝난 것인지 그리고 그 사랑이 끝난 것인지.

가장 보통의 연애를 했다고, 누구와도 다를 것 없는 그냥 사랑을 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의 입가에 걸린 표정이 단순하지 않음을 사랑했던 모두가 알고 있다. 이 영화의 엔딩을 보면서 나는 씁쓸하고 달콤한 내 흥정의 무늬들을 떠올렸다. 어떤 방식으로 훼손되었건 그 덕에 새겨진 이야기들이 밍지만은 않았다. 이 기묘한 애뜻함은 아마도 또 다른 무늬를 새길 것이라 무섭고 또 설렘다.

<진명현 독립영화스튜디오 무브먼트 대표>
(전문가)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취 축 임
CONGRATULATIONS

제주특별자치도 제3대 총괄건축가



선은수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선건축 대표

제주특별자치도 제3대 총괄건축가 취임을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녹색회 회원 일동

취 축 임
CONGRATULATIONS

제주특별자치도 제3대 총괄건축가



선은수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선건축(대표: 선은수)의 제주특별자치도 제3대 총괄건축가 취임을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
회장 강봉유 외 회원 일동

수 축 상
CONGRATULATIONS

제57회 새농민상 본상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



진석완 · 강재선
제57회 새농민상 본상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애월농협 이·감사 일동

수 축 상
CONGRATULATIONS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



김병수
(애월농협 조합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애월농협 이·감사 일동